

2019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전화 : 02-3486-1274~6

이메일 : centralhq@naver.com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9

“유근이를 변화시킨 신한희망 새일이야기”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사는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Shinhan Financial Group Hope Foundation



여성가족부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입니다.



1. 찾아가는 취업지원

- 취업상담
-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 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연계



2. 직업교육훈련 운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을 활용한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 훈련 유형은 일반, 전문 기술, 창업과정 등으로 분류하고, 훈련 시간에 따라 단기·장기 과정 및 취약계층 별도 과정 등을 운영



3. 인턴십 지원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기업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1인당 300만 원 한도)



4. 취·창업 연계 및 사후관리

-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구인 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단계 별 창업 지원
- 고용유지를 위해 취업자와 채용 기업 대상 사후관리 지원



5. 경력단절 예방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 예방 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 개선 교육, 경력단절 예방 협력망 구축 등 서비스 지원

함께 나누며 모두가 잘사는

“신한 희망 사회프로젝트”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

“힘내요,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경력단절여성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

* 취약계층 : 저소득층(중위소득 65%), 장기실업자(중위소득 80%),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여성 등

지원금액 : 1인 기준 최대 90만 원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새일센터 희망챌린저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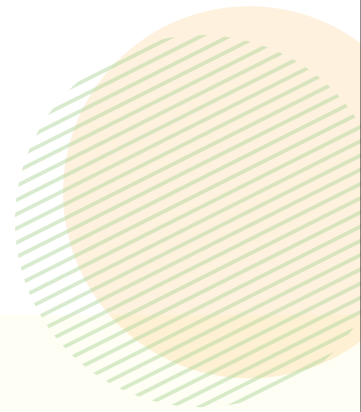
취업 의지가 확고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100인에게
4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중 취약계층*

* 취약계층 :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중위소득 65%), 결혼이민여성(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폭력피해여성

지원금액 : 1인 기준 생계비 300만 원

(월 100만 원, 최대 3개월), 취업지원금 100만 원



신한 희망 사회프로젝트에 참여한 새일센터 훈련생 수기 & 인터뷰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으세요.
자신에게 뭐가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도전하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수기내용 중-

수기

새일센터 훈련생 9인의 희망 수기 _ 06 ~ 32p

인터뷰

새일센터 훈련생 6인의 생생 인터뷰 _ 34 ~ 66 p

스텝

스텝 참여 소감 _ 67p

[퍼넌곳] 중앙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홍보팀



수기

Contents

1. “제 가슴에 크게 박혔죠. 신.한” -정명인님 (가명) _ 06 p
2. “너무 행복해요. 지금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김영미님 (가명) _ 09 p
3. “열심히 살게요. 하늘에서 아이가 보고 있을 거니까요.” -최영선님 (가명) _ 12 p
4. “제가 해냈고, 진짜로 뭔갈 만들었고, 정규직에 취업했어요” -권희선님 (가명) _ 15 p
5. “아무도 내게 이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이하나님 (가명) _ 18 p
6. “저는 인도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로이라님 (가명) _ 21 p
7. “꾸준히 하는데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홍원희님 (가명) _ 24 p
8. “엄마 혼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김 티엔 님 (가명) _ 27 p
9.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현민님 (가명) _ 30 p

* 수기 작성자는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가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제 가슴에 크게 박혔죠. 신·한”

- 정명인 님(가명) -

저는 새일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소로 취업 하고 싶은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아이와 동선을 맞추려면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조리사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새일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학교 조리사로 취업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해서 <맞춤형 급식조리사 과정>을 들으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무슨 일든 했을 겁니다. 당장 취업해서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뭔가를 배우려면 집중도 해야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니까요. 교육을 신청할 때 10만 원을 내고 수수료 후에 되돌려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돈도 부담이어서 3일 밤낮을 고민하다 겨우 신청했어요. 어쩌다 운 좋게 희망챌린저로 선정돼서 요즘은 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발달 장애 지적 2급이에요. 올해 8살인데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엔 1학년으로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준비 중인데 저 역시 자격증을 취득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소로 취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일하려면 누군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데 늦게까지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도 특수한 아이를 그렇게 맡겨둘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동선을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급식소 조리사가 제게 딱 맞는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결혼 후 언제부터가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별거를 계속하다 보니 굳이 이혼이란 절차를 밟아야 하나 싶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몰랐었죠. 한 부모가 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어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작년 7월에 이혼 절차를 밟았고 올해 2월에 이혼했습니다. 그 시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때 거리에서 우연히 현수막을 보고 새일센터를 알게 된 거죠.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모자라서 장애 아이를 낳았나...’

좌절감과 우울감에 많이 휩싸여 살았는데, 요즘 한식조리사 공부를 하면서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한동안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애 등급을 받으면서 멈췄던 인생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교육은 3개월 과정인데, 이론과 실습을 번갈아 가면서 배우고 있고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여러 종류의 실기 메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급식소로 취업하는 것이지만,

취업 후엔 실무 경험을 쌓고 조리장이 되기 위해 더 폭넓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 어떤 경우도 포기는 하지 말자’는 좌우명이 생겼어요.

아이가 좋아질 거란 믿음만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 같은 게

마음 안에 생겨서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새일센터에서 취업준비를 하면서 장애우 가족의 도움으로 쇼핑몰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조금 늦더라도 자라날 테고, 제가 무너지지 말아야 하니까. 제가 무너지지 않고 꿈을 향해서 갈 때 아이도 같이 잘 성장할 거라 믿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선생님, 발을 떼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봐주시고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도움은 잊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가 나를 살렸다. 열심히 일해서 일꾼이 되어서 나라에도 보답하고 신한 카드도 열심히 써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신.한’이 제 가슴에 정말 크게 박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요.”

- 김영미 님 (가명) -

저는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 가장입니다.

새일센터 다니기 전에는 남편이 개인사업을 해서 그 일을 보조했었어요.

경리, 사무를 도왔었는데 남편이 보증 선 것이 잘못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혼도 하게 되고요. 막내가 초등학생이라 늦둥이를 키워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막막한 상황에서 애들 아빠가 저지른 일을 수습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애들과 먹고살아야 하니까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전까지 애들, 남편,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명이 오더라고요. 우울증도 같이 오고 몸이 점점 망가지면서 났을 났었죠. 죽겠다 싶었어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 대상을 모집하는 현수막이었는데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일단 과정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애들 아빠 도와서 경리, 사무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터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회계전산실무원 양성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이 석 달 과정이었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겠다 싶을 만큼 열심히 했고요. 남편 회사에서 일 할 때 많이 실수했던 거,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니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는데 반복 교육을 해주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됐어요.

‘사람은 역시 재밌는 일을 해야되는구나’ 교육을 받으면서 참 많이 느꼈죠. 저한테 이런 교육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요. 삶이 즐거우니 분노나 화도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제 상태는 좋아졌는데 교육을 듣는 동안에도 생계는 책임져야 하고, 아이 셋을 키워야 하니까 교육비나 생활비가 부담되고 걱정되었어요. 작년까지는 급여가 나왔는데 올해는 교육받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아이들 적금을 깨서 쓰고 그랬거든요. 엄마를 돕겠다고 큰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막내도 돌보고,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선생님께서 희망챌린저를 알려 주셨어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라고. 생활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지원금 덕분에 교육도 잘 마칠 수 있었고 새로운 꿈을 꾸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좌절도 하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이후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닐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절망감 때문에 더 아프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살기 위해 새일센터를 찾은 뒤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을 만나기도 했고요.

저는 새일센터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을 만나서 그 끈을 잡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저처럼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발만 떼면 어떻게든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하늘에서 아이가
보고 있을 거니까요.”



- 최영선 님(가명) -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아이가 살아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에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삶으로 보여주고 싶어 오늘도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 병원비 때문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쫓아다니면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는 조건이 안되어 병원비 지원을 못 받았는데, 부산에 내려와서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회복지라는게 어떤 거지? 어떤 상황에서는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될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마침 버스를 탔는데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 광고판을 보게 되었고, 그중 사회복지사 과정을 발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을 처음 신청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요. 생활고에 힘들다 보니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2년이란 시간을 공부에만 쏟을 순 없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던 중 요양보호사가 분야는 비슷한데, 사회복지사 보다 빨리 취업할 수 있다는 말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배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을 배우면서 수업과 실습은 재미있었지만, 생활은 해야 하니까 또 언제 생산공장 쪽으로 가게 될지,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셋 생활비와 교육비 등 당장 필요한 돈이 급하니까 내 꿈은 다른데 있어도 금방 취직되는 곳, 빨리 돈 나오는 곳,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 위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고 보니 ‘내가 그동안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깊게, 처절하게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이는 참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홀로 세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그렇게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아이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이와 제가 둘이 벌면서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고, 기억하기도 어려운 이름의 혈액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내 욕심으로 마이스터고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연구원으로 취업하지 않았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아이의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제가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었습니다. 희망챌린저도 신청하도록 도와주었고요. 희망챌린저 신청서를 병원에서 함께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와 함께 맞춤법, 표현을 고치며 신청서를 썼던 기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었지만, 슬프게도 아이는 지금 제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한 약속도 있고, 저 스스로 느낀 바도 있고, 훗날 ‘엄마 이렇게 잘살고 있어. 잘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이가 보고 있을 거니까요.



“제가 해냈고, 진짜로 무엇인가를 이뤘고, 정규직에 취업했어요!”

- 권희선 님(가명) -



꿈이 있어 대학에 진학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 휴학을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써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대출을 받아 다니던지, 그만두던지. 부모님 몰래 학교를 그만두고 서비스업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일이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늘 초조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고졸이어서 그랬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는 콜센터였는데 들어갈 때는 계약직이지만 기간을 채우면 80%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무엇인지 모를 사정이 생겼다고 했고, 그 누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녔는데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해고되면서 자존감이 엄청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일개 나사 하나같이 언제든 바뀌 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문득 전문기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문자를 받았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는 문자였습니다.

새일센터 <회계사무원과정>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내용과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정말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에 용어도 낯설어서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는데 동기들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분위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원비가 드는 고용노동부 훈련과 달리 100% 국비라 교육비는 부담 없었지만,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일과 공부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취업상담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희망챌린저를 알게 됐고 지원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도, 직장도 없어 전 굉장히 힘들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나이니까요.

서른이라는 나이가. 희망챌린저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살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원해주신 덕분에 수업에 집중해서 교육을 잘 마쳤고, 수료하자마자 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새일센터에서 연결해주신 회계·세무 사무소로요. 업무에 대한 건 아직 모르겠지만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정말 인생의 최악이라 느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버티니까 기회를 찾아서 취업까지 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버티면 정말 별 들 날이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해냈고, 진짜로 뭔갈 만들었고, 정규직에 취업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에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으세요. 자신에게 뭐가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도전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게 이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 이하나 님(가명) -

저는 20대에 자기 라이선스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무기가. 20대에 전문적인 자기 일을 찾아 놓지 않으면 40대가 되어서도 찾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는 솔직히 조금 편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이 지역에서 이름 대면 알만큼 잘 살아서 어려움 없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죠. 젊었을 때 뭘 하려고 하면 남편의 구속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구속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제게는 남편이지만 아이들한테는 아빠니까. 아빠와 관계가 좋아야 아이들이 밖에서도 기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노출 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고학력자고 잘난 사람인데 사회 적응을 못했어요. 세상 때가 안 묻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생활력이 없었죠. 남편과 미술학원을 같이 운영하다가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돈이 잘 벌려서 돈이 모인다 싶으면 이상하게 남편이 돈을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과 무언가를 같이하면 상처만 계속 받게 되고. ‘아, 해도 해도 안되는구나’ 그때 모든 걸 접고 다짐했죠.

‘독립을 하자. 모든 것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적은 돈이라도 알뜰히 벌면 애들은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들었어요. 1년 과정인데, 한 6개월쯤 원장님께 이야기해서 수업을 야간으로 바꾸고 개인 의원에 취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경리 정도의 월급만 받다가 자격증 취득하고 정식으로 월급 받고 그렇게 4~5년 일했습니다.

약다루는 것도 손에 익고 눈감고도 일 할 수 있을 만큼 편해질 때쯤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 의원에서는 주 6일을 일하는데 최저임금을 안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죠. 원장님도 저도 서로 그부분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이가 불편해질 때쯤 첫째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었어요. 결혼자금을 위한 목돈으로 퇴직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조금 힘들었죠.



개인 의원을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다 우연히 거리에 걸려 있는 새일센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50살이 되고 보니 애들 뒷바리지만 열심히 했지, 저를 위해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허탈하고 허무했어요. 요즘 100세 시대 라고 하는데, 나한테 다시 투자하지 않으면 노후를 아이들 또는 남편한테 의지하며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무턱대고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을 신청했어요.

개인 의원에서 일할 때 원무 업무도 봤었는데 당시 어려웠던 엑셀이나 문서, 회계 관련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삶에 있어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 편하게 배웠던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루가, 시간이 돈이거든요. 나가면 돈을 버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배부른 소리인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가족들조차도 처음에는 “뭐하러 배워. 그냥 놀던가 아니면 쉬운 직장을 구하던가 하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행히 희망챌린저에 선정이 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찾아 다시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책 사서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한 번 들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공부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새일센터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더 해서 성폭력센터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봉사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 또는 환경으로 인해 20, 30대를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돕고 싶어요.

아무도 내게 이걸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인도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 로이라 님(가명) -

저는 인도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영어 강사와 힌디어 교사로 일하다 8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우연히 네팔에 사는 사촌 동생이 한국남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 남편을 소개 받아 결혼을 했거든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한국 남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포크레인을 타던 남편은 결혼 후 갑자기 버섯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경남서 강원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획 없이 쉽게 결정해서인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버섯 농사는 잘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어요. 고향으로 온 남편은 일자리를 계속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째 아이가 뇌에 병이 있어 병원을 자주 가야 했지만, 병원비조차 내기 어려워지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시간이 많아져 인도에서 일했던 것처럼 프리랜서로라도 활동하려고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꼭 일이 아니더라도 배워두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고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거 배워서 뭐할래! 아무런 도움이 안돼!”라며 보내주지 않으려 했고, 결국 남편과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즐겁게 지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 자주 싸웠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리 큰 딸은 제가 교육을 듣고 집에 가서 가르쳐주면 “엄마 최고다! 대단하다!” 해주지만 둘째 아들은 5살인데 뇌에 문제가 있어 말을 잘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놀이방에 데려가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못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남편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인도어, 영어, 네팔어, 티벳어, 한국어까지 5개 언어를 할 수 있다 보니 법원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관계된 사건이 있으면 통역, 번역하는 일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 씩 하는 일이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 ‘다문화 이해 강사’로 학교에 나가 인도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이 더 없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새일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창의소통놀이 전문강사 과정>을 들었는데 아이들의 지능·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이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라 더욱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자주 가야 해서 남편이 아이를 돌보느라 제가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다행히 ‘공동체일자리센터’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듣는 동안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원금 덕분에 둘째 아이 병원비를 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도 들으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데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 홍원희 님(가명) -

저는 간호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이혼을 하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병원은 3교대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개인 병원을 갈까 했으나 주말이나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니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건 어렵겠단 생각이 들어서 새일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며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서울에 딱 애하고 저 둘만 남겨져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남편과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여서 부모님을 따라 필리핀에서 자랐는데 마약에 손을 대면서 케어가 안되니까 한국에 보내졌다고 하더군요. 국내 학력이 없던 남편은 취업이 쉽지 않자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는 간호사인 제가 벌며 생활을 유지했는데, 어느 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게 말리면 절 때려서라도 돈을 가져가곤 했고, 고치려 기도원도 가고 부부 상담도 받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둘이 살 때는 그나마 버틸 수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에게 소홀한 그를 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 식구들과도 연을 끊게 됐고요.

가족공예로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2017년도 기사를 통해 새일센터의 <핸드메이드 가족공예 창업과정>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새일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운 좋게도 딱 모집 기간 이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신청 기간에 알게 돼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떨어져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다행히 면접에 합격하고 한 달 생활비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일 끝나고 데리러 가야 해서 어린이집과 가까운 곳을 찾고 싶었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예정된 곳이 있었는데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말길 곳도 없는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계가 어려워 교육받는 걸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는데, 교육과정이 제게 너무 잘 맞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당시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를 통해 30만 원을 지원 받고 있었지만, 생계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한창 고민하던 때에 취업상담사 선생님이 희망챌린저에 신청해보라며 권유해주셨어요. 생계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 신청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희망챌린저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가족에만 집중해서 배울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서는 가죽소품, 가죽가방 등을 만드는 기술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 창업 후 제품을 파는데 필요한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요. 현재는 가방 안감을 만들 때 필요한 미싱을 배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수동 제화거리에 공방으로 취업해서 기술을 조금 더 쌓고 창업을 하고 싶어요. 창업 자본이 없어 아직 꿈같은 이야기지만 서울시 창업지원센터 등 지원해주는 기관을 통해 좀 더 알아보고 플리마켓도 나가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보면 창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스스로를 응원하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마도 혼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 김 티엔 님 (가명) -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13년이 넘었지만, 집에만 있다 보니 한국말을 많이 못 배웠습니다. 집, 시장, 아이 학교 외엔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회생활을 막고 구속하는 남편과 13년을 살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집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다른 다문화가정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누구 탓하지 않고 혼자 잘 버텨왔는데 막상 아이 두 명을 혼자 키우려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으로 돌아가라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저는 한국어 실력도, 돈도, 직업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도움으로 잠시 살 수 있는 곳이 생겼지만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이 필요했고,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알아보던 때에 새일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조리 수업이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과 약속한 대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키도, 몸도 작아서 유치원생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든요. 학교에 가기 싫어할 만큼 속상해할 때면 아이를 치료해주고 싶는데 검사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주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혹시나 아빠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많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부족한 엄마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성공하게 만들어 줄게!”

아이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힘을 냅니다.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고맙게도 희망챌린저가 돼서 한식 자격증도 돈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 수료 후 회사 구내식당의 조리사로 취업도 했고요.

어떻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보다는 가게를 차려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가끔 베트남 고향이 생각날 때면 쌀국수가 먹고 싶은데, 6,000원이면 아이들 간식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조금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리사로 열심히 일해서 훗날 저처럼 베트남 고향 생각이 날 때 누구나 올 수 있는 쌀국수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신한금융희망재단에도,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제일최고야!”라고 말해주는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없어도 엄마 혼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덕분에 둘째 아이 병원비를 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도 들으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 이현민 님(가명) -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잘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전업주부로 열심히 집안일 하며 살아왔던 제게 남편의 빈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저는 은행업무 조차 어떻게 하는지 몰랐거든요.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을 다독이고 남편의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사업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 부채와 채무 관계가 온통 저와 얽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도움 청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고 모두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키워내야 하기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부모 가정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세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큰 아이가 고3이었는데 수능을 보지 않고 제과제빵을 배우더군요. 각자의 상처가 크다 보니 보듬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을 때 큰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 잘못되면 나도 못살아”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제 아이들도 잘 버텨낼 것 같아 호프집 알바, 보험, 타일 붙이기 등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 일하면 현금으로 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타일 붙이기 현장에 갔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무거운 타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눈치를 보며 일을 했지만 너무 고된 일이라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습니다. 이후 콜센터 업무를 1년 정도 했는데 주말 근무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살기 바쁜 세상이니깐 나중이라도 스스로 짐이 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찾아야겠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될 때쯤 새일센터를 만났고요.



새일센터에서 <노인커뮤니티케어과정> 직업교육훈련을 신청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내가 고3이었거든요. ‘학원도 못 다니고 있는데 내가 수입 없이 이렇게 배우러 다녀도 되는 걸까?’ 둘째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야간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돕겠다고 해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조금만 버텨보자란 생각으로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부족함이 없는 노인전문케어 관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 아빠 보내고 4년 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아등바등 버텨왔고, 힘들 때면 혼자 술도 마시고 울기도 했어요. 이렇게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치 4년 동안 애썼다고 앞으로 더 잘하라며 주는 선물 같아요. 특히 신한금융희망재단에서 주신 지원금 덕분에 생활이 조금은 여유로워져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삶이 더 즐겁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동안 정말 생각 없이 살았구나. 스스로 능력과 자격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남편을 보낸 건 마음 아프지만, 다시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사는 걸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인터뷰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Contents

1. “아이들과 코딩 놀이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 정현숙님 _ 34 p
 2. “약국 사무원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 김은경님 _ 38 p
 3. “꽃차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에요!” - 김선영님 _ 44 p
 4.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 최정은님 _ 50 p
 5. “3D프린팅기술로 평생 직업을 찾고 싶어요!” - 김정아님 _ 56 p
 6. “회계 사무직으로 직장생활을 꾸준히 오래 하고 싶어요!” - 정주희님 _ 61 p
-

“아이들과 코딩 놀이하는 선생님이 될래요!”

- 정현숙 님 -



결혼 후 맞벌이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던 어느 날,
한 가정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자리가 준비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행운이란 단어를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정현숙님은 이번
<희망챌린저100>에 선정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코딩으로 함께 놀고 싶다는 꿈이 있는 챌린저, 정현숙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보육교사 일과 코딩 교육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8살, 12살 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정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했고요.
재취업 준비를 하다가 유아코딩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관악새일센터의
<SW코딩교육전문가과정>에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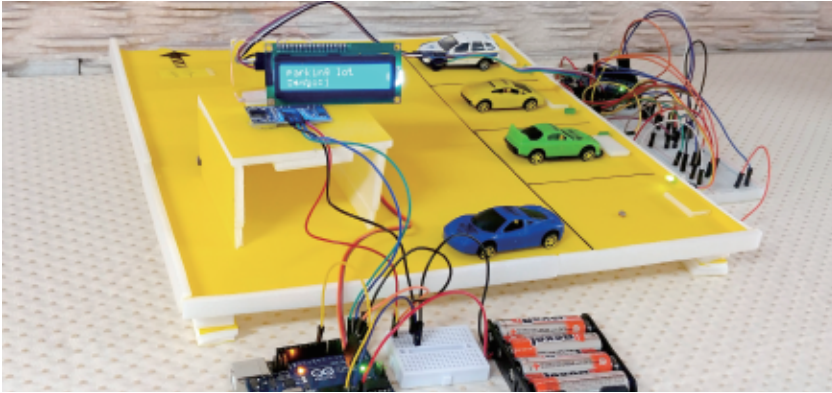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보육교사와는 굉장히 다른 분야 같은데요.

저도 배우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육교사 일과 코딩 교육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코딩 과정에 ‘언플러그드’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쉬운 단계가 과자 모양 끼우기예요. 제가 보육교사 시절에 아이들이랑
비슷한 놀이 활동을 했었던데요. 시리얼을 색깔 별로 빨강은 빨강, 노랑은 노랑,
이렇게 조합한다던가.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컴퓨터로 코드를 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아이들이랑 생활 속에서 놀면서 이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재미있었어요. 놀이로도 좋지만 아이들 지능 발달에도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언플러그드 코딩, 스크래치, 아두이노... 다양한 내용을 배웠어요. 요즘은 손으로
움직이는 블록 코딩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빨리빨리 안되더라고요.
간단한 로직이지만 직접 짜고 작동시키고 이런 것은 안 해봤으니 어려웠지요.
저희 큰 애가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 적이 있어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했어요. (웃음) 반대로 자기가 안 해본 걸 엄마가 하고 있으면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딸한테 많이 도움받았죠.



정현숙님이 참여한 '어벤져스 code'팀의 주차장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사진제공: 관악새일센터)



<SW코딩교육전문가과정> 수료식 (사진제공: 관악새일센터)



<SW코딩교육전문가과정> 수료생 작품전시회 (사진제공: 관악새일센터)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어떠신가요

현재 보육교사 일을 다시 시작했고요. 아이들과 생활할 때 코딩을 놀이와 접목하여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고있어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고요.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과정을 거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해서 컴퓨팅 사고력도 갖춰지고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재취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주저주저하면 시간만 흐르게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겼을 때 일단 나와서 교육과정이라도 참여를 해보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처음 도전했고 알고 있는 정보도 한정적인데 이렇게 새일센터에 와서 취업 정보나 이런 지원프로그램도 알려주시니까 큰 도움이 됐어요.



“약국 사무원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 김은경 님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작았던 목소리가 인터뷰가 끝나갈수록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우며 고군분투해 온 지난 세월의 무게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희망 챌린저의 꿈은 놀랍게도 ‘나를 위한 취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이 바쁘게 달려야 했던 시간을 지나 새일센터를 통해 약국사무원의 길에 들어선 김은경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오신 거죠? 약국 취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겨서 일하게 됐어요.
이 동네가 티오도 잘 안 나는데....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지인이 추천해줬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봐도 여기저기서 다 퇴짜를 맞았거든요. 경력도 경력인데 나이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수업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울 수 있는 게 좋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깐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다졌죠. 마지막에 자격증은 못 땀지만 그래도 필기는 합격했으니깐.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약국사무원이면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엑셀과정하고 실무과정이 있었어요. 실무과정은 약국에서 처방전 접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약국에 6일간 실습을 나가기도 했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못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옆에 짝꿍이 많이 도와줬어요. “언니 이렇게 해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많이 배웠죠.

다들 ‘짝꿍이 도와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가장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젊고 똑똑한 친구인데 “언니 이제 저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에는 이력서 넣으면 다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체 인력 자리도 없다고요. 아직 마흔이 안된 친구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 슬펐죠.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수업 풍경 (사진 제공 : 인천남동새일센터)

“단지 ‘이쪽으로 주세요’ 한마디밖에 못 하지만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교육과정이 끝나고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약사분들이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구인광고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요. 인천남동새일센터 취업상담하는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지금 합격한 약국도 팀장님 연락받고 면접을 보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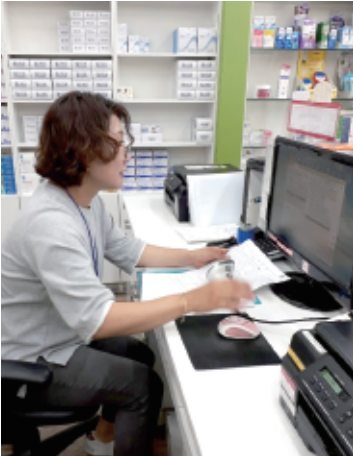
출근한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직접 일해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딱 일주일 됐네요. 가면 갈수록 실수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이제 약국가서 처방전 드릴 때 은경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처방전 받으면 직접 입력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바코드 찍으면 컴퓨터에 처방전 내용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해요. 오류가 날 때도 있거든요. 날짜나 약 종류 같은 것들? 많이 꼼꼼해야 해요. 집중력도 좋아야 하고요.



약국에서 실습하는 김은경님 (사진 제공 : 인천남동세일센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누가들어오는데 아무소리안나는 것 보다는 반갑게 ‘안녕하세요’라고 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손님하고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어요. 약도 우리가 판매를 못 하고 의약 제조도 못하고 단지 ‘이쪽으로 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못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 오면 처음 저를 마주하는 거니까 이 약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요.

“앞으로 나이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취업도 축하할 일이지만 새일센터 희망챌린저에도 선정이 되셨잖아요. 경사가 많네요!

선정됐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좋았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생활비가 가장 크죠. 큰 애가 스무 살. 둘째가 열여섯 살, 중3. 막내는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이 교육과정을 듣겠다고 했을 때 자녀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애들은 엄마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까 신기해하죠. 막내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엄마가? 공부를 해? 엄마가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그러더니 엄마가 하고 있네? (웃음) 제가 자격증 시험 보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시험 꼭 붙어” 이렇게 응원해주더라고요.

든든하셨겠어요.

어른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아실현 때문에, 애들이 다 커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응원해 줬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계가 급한 입장인니까 주변에서 왜 그렇게 느긋하냐고 그래요.

보통 당장 눈앞의 당장 급한 일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무리해서 하신 거군요.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 여자가 혼자 나가서 얼마를 벌 수 있겠어요. 130만 원 이렇게 벌 때는 그래도 좀 일찍 들어가서 애들 케어를 할 수 있지만, 200만 원 넘게 벌려고 하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남들 안 하는 일을 해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신 거예요?

제 몸이 아프면서요. 제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우는 거를 조카가 보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촬영을 어색해하며 활짝 웃는 김은경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요. 나한테 당장 도움이 되는 거, 눈앞에 할 수 있는 일만 했는데, 그렇게 일하는 게 결과적으로 저에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경력도 안되고 몸도 아프고. 나도 앞으로 나이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앞으로 약국 일을 오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경님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약국 일을 꾸준히 하고 싶고요. 그냥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취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힘들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갖고 싶거든요. 더는 바라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은경님처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부딪쳐보자고, 거기서 잠깐 깨지더라도 뭔가 얻는 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약국에서도 그래요. 제가 실수해서 지적받으면 속상하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도 차라리 빨리 혼나는 게 낫다고, 나중에 1, 2개월 지났는데 버벅대서 지적당하면 더 자존심 상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를 때 배우는 게 좋다고 저를 위로하거든요. 회피하지 말고 부딪쳐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꽃차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에요!”

- 김선영 님 -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많은 망설임이 따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분명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머뭇거리게 되지요. 오늘의 희망채린저는 가정 폭력으로부터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꽃을 만나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김선영님의 이야기입니다.

“꽃으로 속마음을 풀어내는 경험을 했어요”

<복지원예사 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인가요?

꽃과 식물을 활용해 수업하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어린이집이나 노인데이케어센터같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죠.

꽃이라고 해서 꽃꽂이하는 플로리스트만 생각했어요.

플로리스트는 꽃으로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면 원예는 식물과 관련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 식용 꽃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다는지, 치자나 밤을 찌서 염료를 만들어 천을 염색한다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복지원예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5년 동안 자유학기제 로봇교육강사로 근무했었어요. 자유학기제는 학교를 많이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더라고요. 로봇 분야는 교육 대상도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원예는 영유아부터 청소년, 노인들 까지 거부감이 없으니까요.

실습활동 결과물을 들고 밝게 웃는 김선영님 (사진 제공 : 본인) >



**아이들도 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에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저는 둘째 임신 중에 원예심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원예로 치료도 하는군요? 미술심리치료처럼?

심리전공자들은 그렇게 접목해서 원예치료사가 되기도 해요. 당시에 제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재판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어하니 복지사 선생님이 아는 분을 소개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 지더라고요. 꽃을 마음대로 자르고 꽃고 하는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꽃으로 제 속에 있는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이었죠. 한 6주 정도 하고 선생님 앞에서 막 울었어요. 고맙다고, 아쉽다고. 나중에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을 만지고 교감하면서 치유 효과가 있었나 봐요.

신기하게 둘째는 꽃을 정말 좋아해요. (웃음) 아기 때부터 저희 친정아버지가 꽃 키우는데 옆에서 쪼그려 앉아서 흙 고르고 있고, 큰 애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교육과정 동기들과 즐거운 단체샷! (사진 제공 : 본인)

“**실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데이케어 센터에서 실습중인 김선영님 (사진 제공: 본인)

교육 일정에 60회 실습이 포함되어 있던데 힘들지 않았나요?

저는 노인분들을 가까이하는 거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버스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두고 ‘요즘 엄마들은 얼마나 편해졌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기억이 많았죠. 현장실습 20회가 데이케어라고 하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애들 보낼 때 모습이랑 비슷해요. 자제분들이 데려다주고 가면 “나 데려가!” 하면서 어린아이 같으세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노인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치매를 앓으셨는데 자꾸 기억력이 쇠퇴하니까 며느리는 아예 못알아보신대요. 요양보호사분들도 못알아보고 혼내시고요. 그런데 꽃을 들고 오는 선생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꽃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욕상에 텃밭이 있는데 거동도 잘 못 하는 분들이 모종을 주면 몸으로 기억하니까 바로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것에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고 느낀 점이 많아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9년 됐어요. 둘째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데리고 나왔거든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 둘째가 2학년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양육권은 가져왔지만, 양육비는 못받고 있어요.



원예행사부스에 참여중인 김선영님 (사진 제공: 본인)

현실이 이러니까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번 큰 애가 20살만 되면 이혼하자 생각했어요. 그런데 폭력이 이제 아이들을 향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을 먹게 됐어요.

“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담당 선생님부터 찾았어요 ”

힘든 시간을 거쳐 복지원예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일센터 희망챌린저100>에 선정된 소감이 어떠세요?

이 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운동하다 조금 빼끗하면 운동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구나 하면서 합리화하고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 교육과정 담당자인 김민선 주임님이 포기하지 말고 해보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자꾸 안 한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길이 분명히 있으니깐 해보라고요.

든든한 지원군이군요.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시원하게 긁어주는 분이라고 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일단 담당 선생님부터 찾았죠. 복지원예사로 일하려면 재료 신고 다녀야 하는데 제가 차도 없고 면허도 없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운전면허를 따세요”가 아니라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좋은 캐리어 하나 사야죠” 이렇게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시네요. 지원금으로 캐리어 사셨나요? (웃음)

덕분에 정말 튼튼한 캐리어를 샀어요! 재료도 사고요. 이번에 <천수답장>이라는 플리마켓에 부스 신청을 했거든요. 집에서 말린 천일홍으로 아이스티와 매작과를 판매하려고요. 큰애랑 둘째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계속 꽃과 관련된 길로 나아가보려고 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부스나 체험행사도 참여하려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농업 교육도 신청했어요. 강사도 좋지만, 나중에는 꽃차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에요. 창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꽃차 자격증도 뒀어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밝아지니까 아이들도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해서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1366(여성긴급전화)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었거든요. 저처럼 임신 중이면 입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 찾아보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도 찾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 최정은 님 -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여유, 그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진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쉬어가야 하는 작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챌린저는 인생의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삶의 다음 스테이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준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최정은 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경로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최정은입니다.

현재 강동새일센터에서 <세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을 듣고 있어요.
11월에 전산회계 1급이랑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안에 취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양한 직훈 중 <세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전에 항공사나 여행사로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학벌이나 조건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인데 최소 전문대는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학력 제한이 적은 한 여행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조그마한 회사다 보니 저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
경리 업무를 처음 접했어요. 정리하고 기록하고 계산하는 일에 흥미가 느껴
지더라고요.

적성에 맞았던 거군요.

네, 여러 업무를 겸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 적성을 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퇴사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강동새일센터 <사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현장

훈련 중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배우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았어요. 어려웠던 점은... 평소 쓰지 않는 한자단어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외우거나 적응하는 데에 꽤 오래 걸린 것? 그리고 이건 공부하며 느낀 점인데요. 이런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사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구나,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다양한 직군이 많다는 것도 알았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다양한 직업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어요. 취업전선에 나가보니 취업을 준비해온 특성화 고교와는 다르게 같은 고졸인데도 써 주는 일자리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훨씬 적었죠.



강동새일센터 <세무사 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현장

“생활의 어려움과 더 나은 직업을 위한 노력
그 사이에서 벽에 부딪혀요”

당장 일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네요.

대학을 갈 형편도 안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활의 어려움과 더 나은 직업을 위한 노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그러다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게 되거든요.

<새일센터 희망챌린저100>에 선정되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 바뀌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희망챌린저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고 나서는 저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생기고, 제대로 취업하고, 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는 그런 거거든요.

정은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국비지원 교육을 받다 보면 다른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선 계속 아르바이트비든 회사 월급이든 집에 생활비를 보탬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걱정부터 앞서고요. 다행히 챌린저로 선정되어서 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지금 하는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운동 같은 건강관리에도 투자하고 싶어요! 제가 체력이 약한 편인데 세무사 사무소는 계절마다 바쁜 시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야근도 많고요. 체력을 키워서 꾸준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작은 복돋움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최정은님!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게는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서로 지탱해주는 가족들, 지켜봐 주는 친구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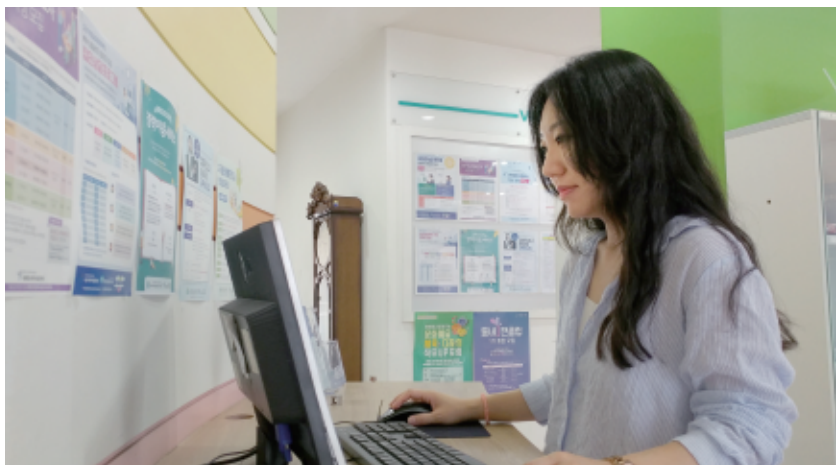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에게 한마디 응원의 말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다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되었든,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사소한 거라도요. 좋아하는 음식이라던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죠. 세상에 너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를 위로하는 작은 복돋움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야지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거든요.



“3D프린팅기술로 평생 직업을 찾고 싶어요!”

- 김정아 님 -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더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충격과 상처, 불안에 휩싸이겠지만 결국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만날 주인공은 직장에서의 아픈 경험을 딛고 3D프린팅기술을 통해 평생 직업을 찾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는지 북부새일센터의 희망챌린저, 김정아님을 만나볼까요?

“3D프린팅 기술이 다른 분야와 만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3D프린팅모델링전문가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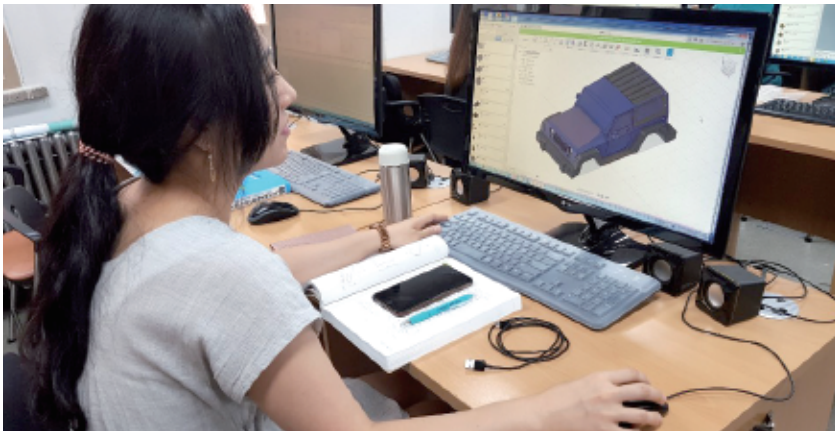
콘텐츠 에디터였어요. 블로그 위주로 기업 SNS를 관리하는 일을 했죠.

3D프린팅과는 다른 분야네요.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평생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으로 급여가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작은 회사였는데 회사가 어려웠어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대표는 지명수배 중이고.... 충격을 받아서 전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쪽의 커스텀 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커스텀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3D 프린팅을 접목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3D프린팅 기술을 자동차 커스텀에 활용할 수도 있나요?

커스텀은 개인 취향에 맞춰서 주문 제작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 소품이나 피규어를 3D프린터로 제작하듯이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부품이나 소품을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죠. 워낙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서 확장성도 있고 3D프린팅 기술과 만나면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3D프린팅모델링전문과 과정>에서 모델링 작업 중인 김정아님 (사진 제공: 북부새일센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교육과정을 들으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5개월 차거든요. 일주일에 4회 교육이 있다 보니 조금 힘들었어요. 집이 하남이라 센터까지 꽤 멀어요. 전에는 오후에 아르바이트도 잠깐 했었는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새일센터 희망챌린저100>에 선정되었을 때 안도하셨겠어요.

그렇죠.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 유지비가 되게 빠듯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지칠 때쯤 센터 담당자님이 포스터를 올리신 걸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여기에 선정된 덕분에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보험 등 줄줄이 지출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타이밍이 딱 맞았죠. 취업지원금은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3D 프린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3D프린팅모델링전문과 과정> 훈련생 김정아님(좌), 직업훈련담당자 김민선 주임(우) (사진 제공: 북부새일센터)

수로 후에도 개인적으로 시제품을 만들거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요!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3D프린터 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실기시험이 있어요. 시험 준비하려면 프린터 기능을 다룰 줄 알고 출력까지 해야 하거든요.

결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반응이 어때요?

걱정하시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은 하는 성격이에요. 여태껏 그래왔었고, 제 앞가림은 제가 하는 편이죠. 주거에 대한 덕은 보고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딱히 손 벌리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데... 결혼은 안 했지만 육아를 하나 부모님을 모시나 대상이 다를 뿐이지 책임감은 항상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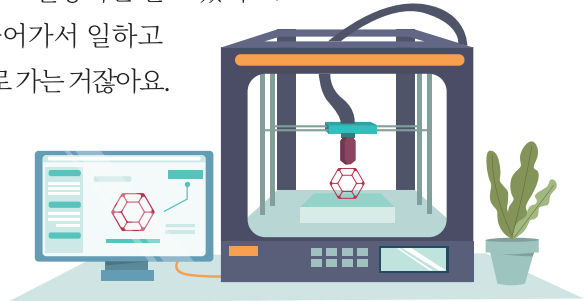
교육이 시간도 길고 거리도 먼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오신 것 같아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이걸 놔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와서 다시 열심히 하게 됐어요. 비용적인 부담이 덜해졌으니까요.

SNS마케팅 경력을 살려서 취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3D프린팅 관련 업체에서 SNS 마케팅 인력을 구하면 지원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고요. 같이 수업 듣는 분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강사보다는 관련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데 나이드 있고 완전 신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걱정과 부담은 있는데 하는 데까진 해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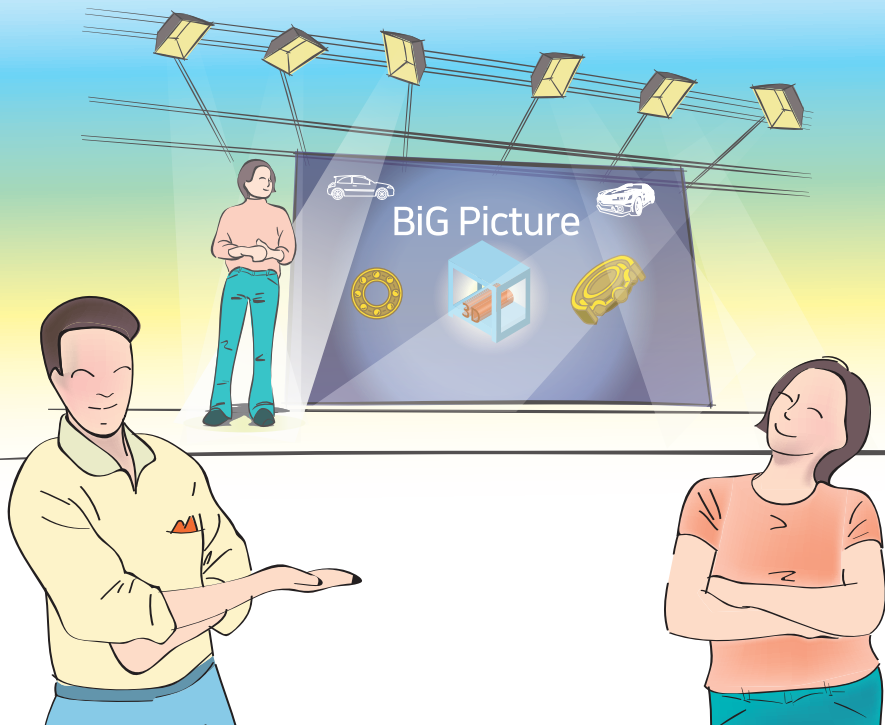


평생직업을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아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는 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관련 업체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분야를 접목해서 창업하고 싶어요. 잘 돼서 나중에 노후까지 준비하고 재능까지 기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큰 그림입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정아님처럼 새로운 직업을 찾는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생이 생각보다 짧지만은 않으니깐요. 장기 레이스니까. 언제든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더 많은 환자를 돕고 싶어요!”

- 박은희 님 -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만큼 자신감있게 기회를 잡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를 기회를 기다리며 혼자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나볼 희망챌린저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 현실에 굴하지 않고, 지난 1년 간 차곡차곡 자격증을 따고, 파트타임 보조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순천새일센터의 <사회복지 맞춤 실무자 양성과정> 수료 후 병원 취업에 성공한 박은희 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일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와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병원에는 언제 취직하신 거예요?

며칠 안됐어요. 7월에 순천새일센터 <사회복지 맞춤 실무자 양성과정>을 마친 다음에 8월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에 신입 교육까지 받느라 한 달 꼬박 걸렸어요.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표정에서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경력이 아니라 신입이라니 놀라워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쪽 육아만 했어요. 정식으로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내세울 경력이라 할만한 것도 없고, 집에 보탬이 될까 싶어 단기 아르바이트만 몇 번 했던 게 다예요.

육아에 전념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새일센터에 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당장 취업하지는 않더라도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나이대가 꽤 높은 분들이 온 거예요. 제 나이가 마흔인데, 저도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20명 수업을 들으면 30대는 3,4명밖에 없고 거의 50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현실을 알았어요. 아, 애들을 다 키우고 나오면 갈 데가 없겠구나. 더 늦으면 취업이 안 되겠구나.



<사회복지 맞춤 실무자 실무자 양성과정> 수업 풍경 (사진제공 : 순천새일센터)

“교육과정 실습을 나갔던 경험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딴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50대면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직장을 구하려고 나선 분들이에요.
한글, 파워포인트 같은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 업무를 기초부터 배우느라 무척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대개의 회사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만 뽑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육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하루 동안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이 좀 길었던 것 빼고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오히려 사회복지사 2급만 있던 저에게 너무 유익한 과정이었어요.
사회복지 행정 기본과정과 사회복지 실습과정을 통해서 부족했던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사무 실무 한글과 ITQ 엑셀, ITQ 파워포인트를
배워서 민간 자격증도 따고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유용하게 써먹고 있어요.
큰 도움이 됐죠.

알찬 시간이었네요. 취업 과정도 센터의 도움받으셨나요?

정말 타이밍이 좋았어요. 이전에 새일센터에서 미술심리상담 자격증을 땄었는데
이 병원에서 진행하는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메인 강사님의 보조로 몇 번
왔어요. 교육과정을 마치고 적당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알게 된
병원 직원 한 분이 “원래 계시던 사회복지사가 육아 휴직을 하게 돼서 새로 직원을
뽑는다.”며 공채 입사 지원을 해보라고 권유해주셨어요.

지원한다고 무조건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 비결이 있었나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아니라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 교육과정을 통해 실습을 나갔던 경험이 면접에서 큰 점수를 딴 것 같아요.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 시설, YMCA 등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 병원에서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포부와 비전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했거든요.



<사회복지 맞춤 실무자 양성과정>에서 조모임을 함께한 박은희님과 동기 수료생들

“일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지 몰랐어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상담하면서 환자들의 변화가 보일 때요. 몸을 다치고 아픈 때문에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환자들이 퇴원 즈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환되어 있어요. 또 제 특기인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다들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이시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실 때 보람을 느껴요. 일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지 몰랐어요. 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능력을 키워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박은희 님의 선한 마음이 행운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취업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희망챌린저 선정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지원금받으면 사회복지사 1급과 요양보호 자격증을 공부하고 응시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해요. 할 일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강의도 좀 들어야겠고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두려고요. 그래야 제가 갈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취업도 되고, 상금도 받아서 가족들이 좋아하죠. 아들, 딸 둘이 있거든요. 남편 혼자 벌다가 둘이 벌면 그나마 가정 형편이 낫겠죠. 제가 벌면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니까 기뻐요.

끝으로 은희님처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길이 어디서 열릴지 모르니까 꼭 취직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취미로 시작해서 동호회 같은데도 나가고 잠깐이라도 교육받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력이 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서 많은 경험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면 경력이 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참여 스탭 후기



김미지 디자이너

2019년은 제게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회계 일을 하다가 새일 센터에서 디자인을 배워서 꿈만 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일센터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의 도움으로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모든 수기들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였는데, 오히려 수기 안에 담긴 용기들을 보면서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수기를 보는 분들 모두 용기 내서 올해는 조금 더 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윤경 디자이너

삽화 그리기가 아직은 아침에 해가 뜨듯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직 후에 19년 새일센터의 도움으로 원하는 편집 디자인을 훈련받은 힘찬 새내기였고, 원고의 주인공들과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되어 기쁘게 열심히 그렸습니다. 분명 아직 미숙한 제게 기회를 듬뿍 담아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며, 계속 훈련해서, 늦깎이 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하리나 디자이너

삽화를 맡게 된 것이 작년 2019년이었는데, 벌써 새롭게 해가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삽화를 그려야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도전해보니 열심히 집중해 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맡은 수기도 읽어보며 그 감정을 잡아내려 노력하고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들을 삽화를 맡으며 많이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귀한 경험과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너무나 무 좋았습니다.